



3면

"상생의 정신으로 도정 운영"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음 4월 29일) 제374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란 종식, 진짜 대한민국"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위해 전북을 찾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안호영 민주당 의원, 전북조국혁신위원회 등과 완주 모악산관광단지 일원에서 도내 유권자들에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양식의 미래, 전북에서

도, 2029년까지 국가R&D 350억원 유치... 김 옥상양식 기술 개발 거점으로 도약

전북특별자치도가 바다를 벗어나 육지에서 자라는 '김'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인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 개발 사업'에 전북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며, 전북이 대한민국 김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바다에서의 김 양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육상에서도 안정적인 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전북이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데에는 지난 수년간의 묵심 있는 준비와 협력의 힘이 있었다.

2022년 풀무원과 손잡고 공동연구에 착수한 것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수산 기술연구소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

이어 2023년부터는 공주대학교 김광

훈 교수 연구팀과 김 종자 대량배양에 나서며 기반을 다졌고, 전북연구원을 통해 김 육상양식 단지 조성방안을 마련해 지자체 중 가장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CJ, 동원, 대상, 풀무원 등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경쟁을 보였으며, 그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유일하게 지방정부로서 종자생산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풀무원은 새만금 2공구에 4만평 규모의 '수산 식품 수출가공단지'를 조성 중으로, 이곳에 실증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풀무원은 지난해 10월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 양식에서 가공, 품질관리, 유통까지 아우르는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전북은 '김 산업의 수도'로 거듭나

게 된다.

이번 성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헌신도 있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역 연구자들과 기업,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만든 결과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이 김 육상양식 분야의 선두 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만들고 세계인이 선호하는 김이 이제 전북 땅에서 싹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 전주서 '배틀'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클럽 인투더딤, 우승 차지

브라더그린, 2위에 올라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격돌한 '전주 비보이그랑프리'에서 '클럽 인투더딤(CLUB I.T.D)'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며 18번째 우승자가 됐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라스트포인'이 주관한 '제18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대회가 지난 24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주 비보이그랑프리는 대규모 크루 배틀이 펼쳐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보이 대회로, 올해 대회에는 국내 비보이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비보이들이 대거 참여해 우승을 놓고 격돌했다.

대회 결과 우승은 '클럽 인투더딤(CLUB I.T.D)'이 차지해 상금 1000만 원과 트로피, 상패를 거머쥐었다.

또한, 2등을 차지한 '브라더그린(Brother green)'은 상금 400만 원과



지난 24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관에서 열린 제18회 전주 비보이그랑프리에서 대상을 차지한 '클럽 인투더딤(CLUB I.T.D)'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패를, 공동 3위(BEST4)를 차지한 '브레이크포인트(BREAK POINTS)'와 '원웨이크루(ONEWAY CREW)'는 각각 2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올해 대회에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무대들이 마련돼 축제의 흥을 돋웠다.

구체적으로 오프닝 공연에는 '2024 파리올림픽' 비결부문 금메달리스트인 일본의 비결 '아미' 등 국내외 심사위원 5명의 쇼케이스와 더불어 Mnet '스트릿우먼파이터2' 출연자인 '마네킨', 서바이벌 프로 그램 '쇼미더머니'의 프로듀서로

인기몰이한 래퍼 '팔로알토', '도파민' (비트박스 음악)으로 화제몰이 중인 2인조 비트박스 그룹 '책꽂'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비보이 종목이 2024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비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비보이를 대중화해 전주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공연을 꾸준히 향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27년 고통 끝났다"... 정읍 용동면 주민들, 상두산 석산 항소심 최종 승소

재판부, 정읍시 석산 사업 불허 처분 '적법' 판결

"주민들의 피해 인정... 종합적 판단 따라 불허 가능"

농촌 주민들이 난개발에 맞서 승리 이끌어낸 사례

정읍시 용동면 주민들이 상두산 석산 확장 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하며, 27년간 이어져 온 난개발 피해에 마침표를 찍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부는 지난 14일 판결에서 정읍시의 석산 사업 불허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시하며 주민 손을 들어줬다.

상두산 석산 개발은 1997년부터 시작돼 용동면 7개 마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소음·먼지 피해와 경관 훼손을 안겨왔다.

2016년 주민과 5개 석산 업체 간 피해 최소와 협약이 체결됐고, 다수 업체는 2025년까지 운영 종료를 약속했

으나, (유)육산이 이를 어기고 주민 몰래 사업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읍시는 2023년 2월 해당 신청을 불허했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용동면 주민들은 정읍시와 공동 대응에 나서며 변호인을 선임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직접 소송에 참여했다.

2024년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승소하며 2년에 걸친 법적 다툼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주민들의 장기 간 피해가 인정된다"며 "행정청은 환

경영행평가 협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종합적 판단에 따라 불허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석산 업체의 불법 채취,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연차별 복구 미이행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난개발에 맞서 자치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낸 전국적 환경운동 사례로 평가된다.

주민들은 지난 23일 용동면사무소 앞 환경연대 사무실 마당에서 마을 축제를 열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환경연대는 철석리 정골 석산 개발 저지를 위한 '비봉산 사수 투쟁'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정읍시용동면환경연대 엄성자 기획실장은 "평범한 농민도 연대하고 싸우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며 "이 승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